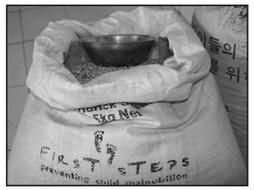
First Steps: Gifts of Kindness

퍼스트 스텝스는 주님의 이름으로 북한 어린이들의 건강과 영양을 위한 선한 선물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지속적으로 필요한 물품들:



대두

퍼스트 스텝스에서는 콩우유 제조용 대두를 꾸준히 보내고 있습니다. 부족한 북한 재배 공급분을 추가로 보충하고자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대두 구매를 위해 $_____ 를 후원합니다.

미량영양소 스프링클스

캐나다에서 개발한 미량 영양소 스프링클스는 가정식의 영양을 보완하는 혁신적인 미량 영양소입니다. 비용은 한 포 당 3센트 이지만 효과는 탁월한 스프링클스는 임산부와 수유부, 24개월 연령까지의 영유아에게 배급됩니다. 엄마와 아기들의 빈혈 및 기타 질병을 성공적으로 예방합니다

스프링클스 구매를 위해 $ _____ 를 후원합니다.

콩우유 보관 용기

20리터 스테인리스 스틸 콩우유 보관 용기는 생산 센터에서 콩우유를 보관하고 각급 학교의 어린이들에게 배달하는 데 필수적 입니다. 용기 가격은 $100입니다.

콩우유 보관 용기 구매를 위해 $100 또는 $ _____ 를 후원합니다.

바이타고트

바이타고트는 다양한 연료(장작, 석탄 등)로 작동됩니다. 대두를 콩우유로 만들어 매일 1,500명의 어린이가 한 잔씩 마실 수 있는 양을 생산합니다. 현지 사정상 정전이 잦으나 정전 중에도 작동할 수 있는 것이 바이타고트의 장점입니다. 가격은 $4,000입니다.

북한의 제휴 시설에 바이타고트 기증을 위해 $ _____ 를 후원합니다.

바이타카우

바이타카우는 대두를 콩우유로 생산하여 따뜻하고 단백질이 풍부한 음료를 어린이들에게 제공합니다. 전기로 작동하며 배고픈 어린이들을 먹일 콩우유를 매일 2천잔씩 생산합니다. 가격은 $7,000입니다.

북한의 제휴 시설에 바이타카우 기증을 위해 $ _____ 를 후원합니다.

name _____
address _____
city _____ prov. _____ postal code _____
phone _____ email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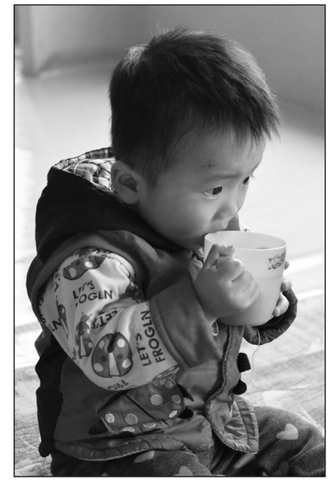
Please make cheques payable to First Steps and forward to: 3260 West 5th Ave. Vancouver, B.C. V6K 1V4 Canada
BIN: 821724036 RR0001. Gifts are acknowledged with an official receipt for income tax purposes.
For further information contact us at: 604.732.0195 or www.firststepscanada.org

Please Recycle or Pass Along

Facebook.com/Firststepsorg | @firststepsorg | firststepsorg | Linkedin.com/firststepscanada

FIRST STEPS news

2016년 여름호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시편 36:5

퍼스트 스텝스가 북한에서 사역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15년이 흘렀습니다.

모든 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가능한 일이라 믿습니다.

또한 기도로, 물질로, 자원봉사로 꾸준히 도와주신 여러분이 계셨기에 북한의 어린이들과 가정에 그야말로 피부로 와 닿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그분의 이끌림대로 움직여 주신 여러분 없이는 퍼스트 스텝스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시편에 나온 말씀 그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함께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 어린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지난 5월에도 저희는 북한의 고아원 및 탁아소와 진료소를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북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도 일하고 계심을 느끼며 더욱 감사하며 힘찬 기운을 얻었습니다.

방문지마다 그간 가꿔 온 북한 협력자들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콩우유와 미량영양소 스프링클스를 어린이들과 임산모 그리고 유아들이 실제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북한 파트너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특히나 좋았습니다.

2015년도 식량 생산량이 전년도 대비 10퍼센트 줄어든 상황에서 북한은 여러모로 힘겹다는 사실을 접했습니다. 예를 들어 와우도 탁아유치원 공급소의 경우, 가뭄으로 인해 평년의 50퍼센트 정도에 불과한 대두 수확량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올해 수확량에 대해서는 낙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산 곡산 식료 공장에서는 250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저희가 방문했던 사흘 내내 들로 나가서 대두 종자를 파종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농민들이 보다 나은 발근기법을 활용하여 많은 양의 대두를 파종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퍼스트 스텝스에서 최근에 보낸 대두를 아주 감사히 받았다는 인사도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북한에서 직접 재배한 대두가 소진될 무렵 때마침 퍼스트 스텝스 대두가 도착했다고 하니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고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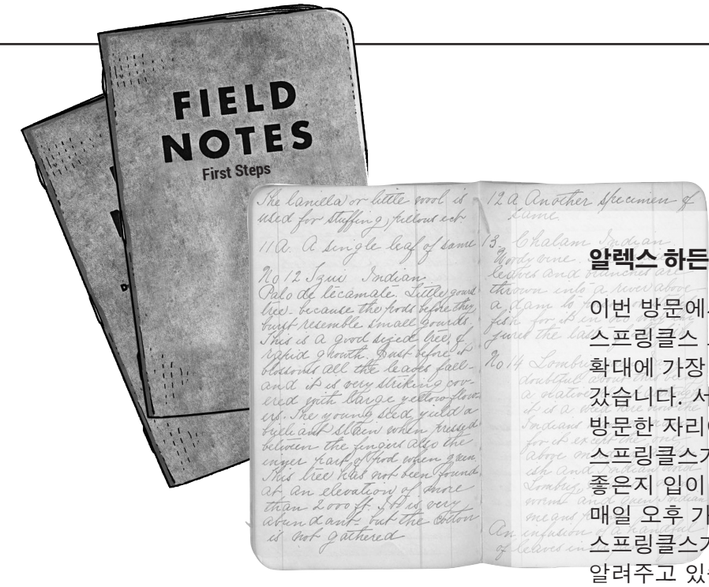
올해엔 저희의 스프링클스 프로그램을 (강원도 제2도시인) 문천까지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린이 영양 연구소와 스프링클스 확대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교육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었습니다. 연구소 관계자에 따르면, “스프링클스가 얼마나 유익한지 전가족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만약 엄마가 잊어먹고 복용하지 않았을 경우 가족 중에 누군가가 나서서 챙겨줄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문천에 있는 저희 파트너들에게도 기존의 교육용 영상물과 책자 그리고 포스터를 제공해서 그대로 사용하도록 권장 했습니다.

이 외에 양강도의 혜산에도 스프링클스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하였고, 더불어 콩우유 프로그램의 지원도 요청 받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환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수잔 리치

First Steps is a Christian humanitarian organization reaching out to children in DPR Korea.

현장에서··· First Steps



필 샤프란

이번 북한 방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남포시 와우도 탁아 유치원 공급소 소장님 이십니다. 소장님은 퍼스트 스텝스 대두의 맛과 향이 모두 뛰어나다며, 우리가 보낸 대두로 만든 콩우유의 품질이 대단히 우수하다고 하시더군요.

와우도 탁아 유치원 공급소는 바이타카우 한 대 그리고 바이타고트 한 대만 있는 아주 작은 시설입니다. 소장님은 특히 땔감을 연료로 쓰는 바이타고트가 아주 마음에 든다고 하셨습니다. 전기공급이 불안정한 북한에서 전기를 이용하는 바이타카우는 정전시마다 가동을 중지해야 하는 반면, 땔감으로 운용되는 바이타고트는 전력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전기 걱정 없이 콩우유를 더 많이 만들고 싶다고 바이타고트가 한 대 더 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닷새 후에 와우도를 다시 찾았더니 엄청난 양(약 5*5*7입방 피트 규모)의 나뭇가지 무더기가 콩우유 공급소 밖에 배달 되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작은 크기로 잘라서 바이타고트 연료로 사용할 땔감들이라고 소장님께서 설명 해주셨습니다. 이 과정은 손이 많이 가지만 좋은 두유를 생산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와우도공장 바아티고트 연료로 쓰일 땔감더미

소장님은 건물 꼭대기층에 작은 텃밭도 가꾸고 계시는데 퍼스트 스텝스에서 이전에 채광창을 설치해 드린 텃밭입니다. 현재 소장님은 이곳에서 돼지 세 마리도 키우고 계시며, 다 키우고 나면 팔아서 바이타고트 연료를 더 많이 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다재다능한 소장님이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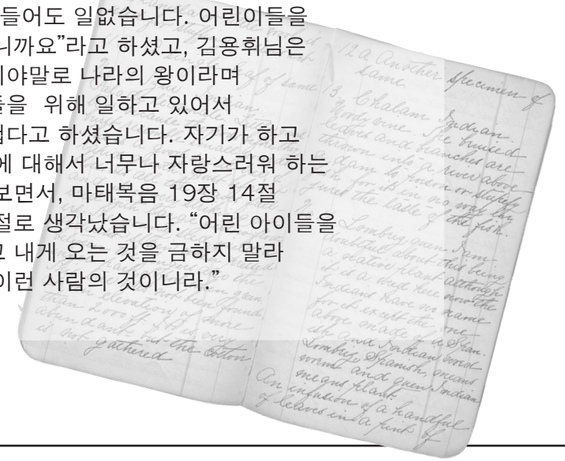
저희가 방문했던 원산, 문천, 평성을 비롯해 형제산의 식료공장에서는 날마다 콩우유를 생산하고, 그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배달하기 위해 공장일꾼 모두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매들린 하든

퍼스트 스텝스 북한 방문의 주요 목적은 최근에 북한으로 보낸 대두, 스프링클스 그리고 각종 장비들의 도착과 적절한 배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입니다. 그 과정에서 할머니 들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 듣기도 했습니다. 당신들의 자녀들은 너무 힘겹게 키웠지만, 손주들은 복스럽고 곱게 자라고 있다며, 퍼스트 스텝스가 매일 공급하는 콩우유 덕분이라고 말씀하시며 감사의 마음을 표하셨다고 합니다.

이번 방문에서 북한에 있는 우리 파트너들이 아이들을 정말 헌신적으로 사랑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콩우유를 만든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밤중에 일을 해야 할 때도 있고, 난방이 없는 건물에서 추위와 싸우며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30 킬로나 되는 대두 포대를 옮기고 콩우유가 가득 든 20 킬로 스테인리스 우유통을 들어 나르는 것도 정말 고된 일이고요. 통천 식료공장의 리연숙님은 "일이 힘들어도 일없습니다. 어린아들을 위한 거니까요"라고 하셨고, 김용휘님은 아이들이야말로 나라의 왕이라며 어린이들을 위해 일하고 있어서 만족스럽다고 하셨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너무나 자랑스러워 하는 분들을 보면서,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이 절로 생각났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해안보육원에서 콩우유를 기다리면서 낯선 방문객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아이들



알렉스 하든

이번 방문에서 저는 스프링클스 프로그램 확대에 가장 많은 관심이 갔습니다. 서포 진료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의료진은 스프링클스가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 입이 닳도록 칭찬을 했습니다. 호담당의사들이 매일 오후 가정방문을 할때 선전 영상물을 통해 스프링클스가 임산모와 아기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스프링클스는 임산모 그리고 2세 미만 유아의 영양실조를 예방하는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일 것 입니다.

서포보건소에서 자랑스레 아기를 보여주는 아기엄마

의료진을 만난 후에 바로 옆 방으로 가서 스프링클스를 복용하고 있는 임산모들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아기들을 안고 있는 엄마들의 자랑스런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정말 따뜻해졌습니다. 스프링클스의 놀라운 효과가 고스란히 보이는 너무나 건강하고 예쁜 아이들과 사진을 찍으면서 다들 아주 뿌듯하고 즐거워 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효과가 좋다고들 하는 이 놀라운 스프링클스가 더 많은 임산모와 유아들에게 공급된다니 정말 기쁩니다.

남포 식료공장에서 두 달 정도 일해 온 김조훈이라는 분하고도 흥미로운 만남을 가졌습니다. 공장 내 기기에 대해서 노트에다 몇 자 적고 있었는데, 어깨너머로 제가 쓴 내용을 읽고 있길래 물어보니, 영어를 읽고 쓸 줄 아는 분이었습니다. 제 노트를 빌려서 영어를 좀 더 읽어보기도 했고, 자신에 대한 소개도 조금 해 주었습니다. 최근에 아내와 14개월짜리 딸 선명이와 함께 원산에서 이사를 왔는데, 이전에는 경제학자로 일도 했고, 취미 삼아 영어공부도 하고 야구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동료들과 즐겁게 일하고 있다면서, 열심히 콩우유를 만들고 있는 친구들을 장난스레 가리키며 즐거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조훈님에게 노트를 보여주는 알렉스